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49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일

발 의 자: 이군수, 강상태, 최현백,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김선임, 윤혜선,
고병용, 박경희, 이준배, 조우현,
정연화, 최종성, 김윤환, 조정식
(이상 16명)

□ 제안이유

-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원도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가치를 증명하였다.
- 하지만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으로 의료인력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의료원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안정적인 병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 민간 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공공의료와 경영에 역량을 갖춘 원장과 경영진을 확보해야 한다.
-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필수 중증의료(응급, 중환자, 심뇌혈관)의 진료능력을 갖추고, 민간병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감염병, 호스

피스, 재활, 장애인 치과, 행동발달센터 등)를 강화해야 한다.

- 다양한 취약계층(노숙인, 다문화, 저소득층)에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와 높은 진료 수준의 공공의료 모델을 선보여야 한다.
- 성남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하며, 의료진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 붙임 :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1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원도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의료 기관이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절대가치’가 있으며, 정치세력이 바뀌었다고 흔들어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성남 시민의 뜻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가치는 증명되었고,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의료진을 비롯한 성남시의료원 모든 관계자들은 ‘빛나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불투명한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2의 코로나’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버려서는 안 될 가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이 취임하면서 의료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의료원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버렸다.

민간위탁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8개월 넘게 원장 채용을 미루고 있다. 둘째, 위탁추진 발표로 의사가 떠나고 있고 채용도 되지 않고 있다. 셋째, 민간위탁 추진 강행으로 시민발의 가치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넷째, 시민의, 시민에,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포기했다. 다섯째, 응급의료센터를 방치해서 삼류의료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여섯째, 경영정상화 방치로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 일곱 번째, 건강도시 성남을 포기했다.

이렇게 경영정상화를 방기하고 위탁에만 몰두하는 것은 전)성남시정부 지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곧 5년차를 맞이한다. 2022년까지 성남시의료원의 재무상황은 문제가 없었다. 물론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에 따른 손실보상금 영향이 컸다. 이제는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병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세워서 극복해 가야 한다. 당분간은 많은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복해 가야 할 문제다. 성남시의료원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주변 의료기관 상황을 보면 환자 수급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신상진 시장이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하고 민간위탁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설립 당시 서울시의료원을 모델로 진료 수준과 의료인력을 채용하려 했었다. 그러나 신시장 취임 이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많은 의료진이 병원을 떠났다. 난이도 높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진료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입은 오히려 줄고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상진 시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민간 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공공의료와 경영에 역량을 갖춘 원장과 경영진을 확보해야 한다.

하나,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필수 중증의료(응급, 중환자, 심 뇌혈관)의 진료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감염병, 호스피스, 재활, 장애인 치과, 행동발달센터 등)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다양한 취약계층(노숙인, 다문화, 저소득층)에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와 높은 진료 수준의 공공의료 모델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하나, 성남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료인력을 최소 100~150명 수준으로 적극 채용해야 한다.

하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2023. 9. .

성 남 시 의 회